

## 간호사-간호사, 간호사-의사 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소자<sup>1</sup>, 전미경<sup>2\*</sup>

<sup>1</sup>충북보건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sup>2</sup>충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Nurse, Nurse-Doctor Coopera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So-Ja Jeon<sup>1</sup>, Mi-Kyung Jeon<sup>2\*</sup>

<sup>1</sup>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buk Health Science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t. of Nursing, Chung cheo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간호사 협력 및 간호사-의사 협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간호대학생 140명이며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및 Pearson's 상관계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은 회귀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간호사 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 요인은 간호사-간호사 협력으로 설명력은 48.0%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사-간호사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전문직 간 협력 향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직 간 협력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적용의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키워드** : 간호대학생, 임상실습 경험, 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사-간호사 협력, 간호사-의사 협력

**Abstract**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study to identify the relationship between nurse-nurse cooperation, nurse-doctor cooperation, and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among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40 nursing students, and the collected data were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regression analysis of the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s a result of the study,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nurse-nurse cooperation and nurse-doctor cooperat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 of professional self-concept was nurse-nurse cooperation, with explanatory power of 48.0%.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the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to enhance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s to promote the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nurses and nurses, and to develop a curriculum for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imulation scenarios for cooperation between professionals based on clinical field cases.

**Key Words** : Nursing students,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e-nurse cooperation, Nurse-doctor cooperation

\*Corresponding Author : Mi-Kyung Jeon(jeonmk4311@nate.com)

Received February 6, 2024

Accepted April 20, 2024

Revised February 22, 2024

Published April 28, 2024

## 1. 서론

협력은 전문가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서로 협조하며 상호의존적으로 일하는 것으로[1], 의료인 간의 협력은 효율적으로 환자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2]. 효율적인 협력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족도를 높여주고[3,4], 의료 오류와 재원 일수를 감소시켜주며 의료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다[5,6]. 특히 현대 사회에서 의료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환자들의 요구도와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인 간 협력은 더 강조되고 있다[7]. 병원 내 의료인 중에서도 간호사는 타 의료인보다 실제적으로 환자 옆에 머물며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고,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치료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특히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사와 의사는 환자 치유라는 공통의 목표를 협력이라는 과정 속에서 달성하고자 하며 이러한 협력의 과정은 의료시스템 안에서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환자 중심의 의료인 간 협력은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병원 조직 관리에서 조직 구성원의 협력 능력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간호사-의사협력은 간호사와 의사가 환자치료라는 목적을 공유하는 상호과정(interpersonal process)으로 간호사-의사협력관계의 향상을 위해서는 서로의 역할과 업무 범위에 대한 이해와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였다[1]. 뿐만 아니라 간호사와 의사의 효율적인 협력관계는 환자의 치료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환자의 사망률과 입원일수를 감소시키며, 환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고 강조하고 있다[5,6].

간호사-간호사협력은 환자의 간호문제 혹은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이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하며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는 전문직 내(intra-professional) 혹은 전문직 간(inter-professional)의 과정이다[8]. 병원 내 의료인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환자 옆에 머물며 환자와 접촉하는 시간이 많고, 환자의 요구를 파악하고 치료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간호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더 나은 환자 결과(Patient Outcomes)를 위해 간호사 간의 협력정도와 능

력을 최대화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3].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학습된 간호지식의 적용뿐만 아니라, 간호사로서의 자질과 역할을 배우게 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자신의 간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이해와 간호지식, 기술과 간호사로서의 태도, 신념 및 가치, 간호의 윤리적 표준 등을 내면화하고 발달시키며,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 간의 관계에 대한 관찰과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전문직 사회화를 경험하게 되고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9].

전문직 자아개념이란 전문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직에 대한 자아개념으로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기 자아에 대한 정신적 자각으로 정의한다.[10]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로서 자존감과 자기개념을 향상시키고, 병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의료인과 조화를 이루게 한다. 이러한 조화는 효율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궁극적으로는 간호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며[11-14], 개인 발전과 간호 실무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임상현장에서 소진을 감소시키고 업무생산성을 높이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14]. 간호사뿐만 아니라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도 다른 다양한 전문직 종사자들이 공존하는 의료현장에서 전문가들과 조화를 이루며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15]. 대학생들은 미래에 간호를 이어가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기로 대학생활에서 긍정적인 자아개념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한다면 미래에 간호사가 되었을 때 대상자에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간호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16,17].

이에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간호대학생이 지각된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를 파악하고, 전문직 자아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을 위한 다양한 역량 함양과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 전문직 자아개념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 2.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D시 소재 간호대학 간호학과 재학생으로,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자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지도학생을 제외하였으며, 연구대상자가 자유롭게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직접 강의를 하지 않는 학년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표본의 수는 G-power 3.1.9.7 program을 통하여 예측 요인의 수 3개, 중간 효과크기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0를 적용한 결과 최소 표본수가 119명이었으며, 탈락률 10%를 고려한 1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으며 불충분한 응답의 1부를 제외하고 14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 2.3 연구도구

### 2.3.1 간호사-간호사협력

본 연구에서 간호사-간호사협력은 Dougherty와 Larson [18]이 개발한 간호사-간호사협력 도구를 Lee & Hwang [7]이 한국어로 수정 및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점수를 말한다. 관리 7문항, 의사소통 8문항, 공유된 과정 8문항, 조정 5문항, 전문성 7문항으로 5개의 하부영역과 총 35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4점 척도 문항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Dougherty와 Larson [18]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 2.3.2 간호사-의사협력

본 연구에서 간호사-의사협력은 Ushiro [19]가 개발한 간호사-의사협력 도구를 Lee & Hwang [7]이 한국어로 수정 및 번역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환자 정보 공유 9문항, 치료의 의사결정 과정 12문항, 간호사와 의사의 관계 6문항으로 3개의 하부영역과 총 27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Likert 5점 척도 문항이다. 도구의 신뢰도는 개발 당시 Ushiro [1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0$ 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 2.3.3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Arthur [10]가 개발한 PSCNI (Professional Self Concept of Nurse Instrument)를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Song [16]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4점 Likert 척도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Arthur [1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5$ 이었고, Song [1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4$ ,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 2.4 자료수집 및 윤리적 고려

자료수집 기간은 2023년 10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온라인 설문 시작 전에 연구의 목적과 내용, 사생활 보호 및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성을 설명하고 확인하도록 하였고,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온라인 상에 밝힌 후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였다. 어느 때라도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과 중도 철회로 인한 불이익이 없을 것을 안내하였다. 대상자는 코드화하여 분석하였다.

## 2.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 정도 차이는 t-test, ANOVA로 사후검정은 Scheffe로 분석하였다.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관계는 Pearson's 상관계수로, 전문직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3. 연구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연령은 평균 22세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은 121명(86.4%), 학년의 경우 3학년이 96명(6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종교의 경우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95명(67.8%)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학 전공을 선택한 이유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5명(39.3%), 취업이 잘 되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52명(37.1%)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에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72명(51.4%), 취업을 희망하는 병원은 대학병원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117명(8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1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Mean ± SD or n(%)
Age(years)		22.28±1.85
Sex	Female	121(86.4)
	Male	19(13.6)
Grade	3rd	96(68.6)
	4th	44(31.4)
Religion	Christian	29(20.7)
	Catholic	11(7.9)
	Buddhism	5(3.6)
	None	95(67.8)
Reason for major selection	A peripheral solicitation	28(20.0)
	To become a nurse	55(39.3)
	On the job well	52(37.1)
	In accordance grades	5(3.6)
Major satisfaction	Bad	8(5.7)
	Normal	60(42.9)
	Good	72(51.4)
Career	University hospital	117(83.6)
	Small & medium-sized hospital	9(6.4)
	Public servant	8(5.8)
	Industrial nurse	3(2.1)
	Ect.	3(2.1)

**3.2 대상자의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정도는 Table 2와 같다. 간호사-간

호사협력의 경우 4점 만점에 평균 3.05점, 간호사-의사협력의 경우 5점 만점에 평균 3.99점, 전문직 자아개념의 경우 4점 만점에 평균 3.26점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N=140)

Variable	Mean ± SD	Mean rating ± SD	Min	Max
Nurse-nurse cooperation	106.05±11.17	3.05±0.32	1	4
Conflict management	21.63±3.24	3.09±0.46		
Communication	22.26±3.03	2.78±0.38		
Shared process	23.19±2.65	2.90±0.33		
Adjustment	16.18±2.08	3.24±0.42		
Professionalism	22.79±3.26	3.26±0.47	1	5
Nurse-Doctor Cooperation	108.01±15.82	3.99±0.59		
Sharing patient information	37.41±4.63	4.16±0.51		
Therapeutic decision-making process	47.58±8.23	3.96±0.69		
Nurse-doctor relationship	23.03±4.60	3.84±0.77		
Professional self-concept	98.87±12.04	3.26±0.37	1	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차이**

일반적 특성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Table 3과 같다. 간호사-간호사 협력은 성별(t=1.81, p=.037), 학년(t=1.86, p=.032), 전공만족도(F=6.69, p=.005)에서, 간호사-의사 협력은 학년(t=3.70, p<.001)에서, 전문직 자아개념은 학

**Table 3. General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between variables**

(N=14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urse-nurse cooperation		Nurse-Doctor Cooper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Mean±SD	t or F (p)
Sex	Female	105.38±11.02	1.81 (.037)	107.25±15.73	1.45 (.074)	98.22±11.59	1.62 (.054)
	Male	110.32±11.48		112.89±15.92		103.00±14.28	
Grade	3rd	107.23±11.61	1.86 (.032)	111.22±15.69	3.70 (<.001)	100.42±12.26	2.28 (.012)
	4th	103.48±9.78		101.02±13.86		95.50±10.93	
Religion	Christian	104.52±8.11	0.75 (.525)	104.34±16.99	0.85 (.471)	100.38±12.15	1.07 (.364)
	Catholic	102.64±12.11		106.73±12.25		97.82±10.72	
	Buddhism	105.00±8.75		113.20±9.86		107.00±8.60	
	None	106.97±11.96		109.01±16.03		98.11±12.25	
Reason for major selection	a peripheral solicitation	107.11±10.70	0.26 (.857)	110.07±16.10	0.35 (.790)	99.18±10.94	2.33 (.077)
	To become a nurse	106.31±12.44		108.35±17.10		101.58±12.19	
	on the job well	105.50±10.21		106.42±14.47		96.60±11.24	
	in accordance grades	103.00±11.00		109.40±16.18		91.00±19.17	
Major satisfaction	Bad <sup>a</sup>	100.88±7.16	6.69 (.005)	103.00±14.88	2.32 (.102)	89.88±7.18	13.38 (<.001)
	Normal <sup>b</sup>	103.02±9.08		105.42±14.87		94.55±11.26	
	Good <sup>c</sup>	109.15±12.26		110.74±16.38		103.47±11.27	
career	University hospital	106.51±11.52	2.25 (.155)	108.91±15.61	1.65 (.165)	99.40±12.19	0.53 (.715)
	Small/medium-sized hospital	106.66±12.93		106.00±16.07		97.33±11.06	
	Public servant	102.88±4.79		102.50±15.41		97.50±13.47	
	Industrial nurse	97.33±4.93		88.33±16.20		91.33±9.24	
	Ect.	103.33±4.04		113.33±17.93		94.00±9.64	

년( $t=2.28$ ,  $p=.012$ ), 전공만족도( $F=13.38$ ,  $p<.0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 3.4 간호사-간호사협력, 간호사-의사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의 상관관계

간호대학생의 간호사-간호사 협력, 간호사-의사 협력 및 전문직 자아개념간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사-간호사협력( $r=.603$ ,  $p<.001$ ) 및 간호사-의사협력( $r=.474$ ,  $p<.001$ )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r(\rho)$	Nurse-nurse Cooperation	Nurse-Doctor Cooperation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e-nurse cooperation	1		
Nurse-Doctor Cooperation	.727** ( $<.001$ )	1	
Professional self-concept	.603** ( $<.001$ )	.474** ( $<.001$ )	1

### 3.5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

회귀분석을 위해 종속변수의 자기상관과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 검토를 하였다. 종속변수의 자기상관은 Durbin-Watson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925으로 2에 근접하게 나타나 자기 상관이 없이 독립적이었다. 독립변수 간 다중공선성은 VIF(Variance Inflation Factor) 분산팽창요인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1.990으로 기준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간호사-간호사 협력으로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8.0%로 나타났다(Table 5).

Table 5. Factors influenc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ing students

	$B$	$SE$	$\beta$	$t$	$p$	VIF
Constant	29.651	7.911		3.748	$<.001$	
Nurse-nurse Cooperation	.665	.095	.617	6.967	$<.001$	1.990
Nurse-Doctor Cooperation	-.057	.232	-.247	-0.247	.806	1.990

$adj R^2=.480$ ,  $F=49.217$  ( $\alpha<.001$ )

## 4. 논의

전문가들이 책임을 공유하고 상호 의존하여 서로 협조

적으로 일하는 협력은[1], 효율적인 협력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환자의 만족도를 높여주며[2,3],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병원의 조직 관리는 조직 구성원 간의 협력 역량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어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실습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이 전문직 자아개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시도되었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간호사협력의 경우 평균 3.05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Lee & Hwang[7]의 연구에서 2.79점, Seo[20]의 연구결과에서 3.00점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의 경우 임상실습기간동안 간호의 수행보다는 간호사-간호사와의 관계에서 직접적인 업무로 인해 경험하는 과정이 아닌 관찰만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되어진다. 간호사-간호사 협력은 질 높은 의료와 직무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직 응집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21], 조직에서는 간호사-간호사협력이 의료의 질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문화의 개선과 변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간호사-의사협력의 경우 평균 3.99점으로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Seo[20]의 연구에서 3.26점, Lee & Hwang[7]의 연구에서는 3.43점으로 선행 연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사의 경우 입원기간 동안 환자 및 보호자와 가장 가까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의료진으로 환자의 치료과정에 적극적인 개입과 의견의 교류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필연적으로 간호사는 의사와 환자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나누고,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협력적 행위의 빈도가 높아 이러한 결과를 보였을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환자에게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고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는 보건의료계의 전문 인력 간 협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의 경우 평균 3.26점으로 Kim[22]의 연구에서 3.24점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학년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자아개념이 높게 형성되어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긍정적인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은 간호대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을 높이고, 졸업 후 전문직 간호사로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여 간호업무 수행에서도 성과가 높아진다고 강

조하고 있어[23]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간호사협력( $r=.603, p<.001$ ) 및 간호사-의사협력( $r=.474, p<.001$ )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협력은 같은 직군 내의 여러 명의 구성원들이 질 높은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적으로 일하며[24],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여러 건강 제공자가 함께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일하는 것으로[25], 보건의료 환경 내에서의 의료인 간의 협력은 대상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의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 증진,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 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살펴본 결과 간호사-간호사협력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48.0%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간호사 협력을 살펴본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간호사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임상현장에서 다른 전문직 종사자들과 협력을 이루며 효율적으로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업무 만족감, 재직의도가 높아진다고 한 Park[26], Jeon[15], Je et al.[27], Jahromi, Kargar, & Ramezanli [28]의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간호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학과 교육과정 내 간호사-간호사협력 관계 증진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으로 예측되었던 간호사-의사협력이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로는 간호사의 전문성에 대한 무시[7], 전문직 간의 갈등 및 의사의 무례한 태도, 간호사의 사무적인 말투 등으로[2], 의사와 간호사의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을 임상실습기간 중 경험을 통해 나타난 결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의료인인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임상에서의 간호사-의사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각 직군 간의 전문직에 대한 존중과 태도를 갖추는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기간 중 간호사간의 전문직 간 협력 향

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임상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 및 적용과 같은 교육과정 개발도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 나아가 병원환경 내에서 전문직 간의 협력적 행위를 증진시키는 선행요소가 의사소통 능력[29,30]이라고 하였으므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프로젝트 수업과 같은 다양한 교수법 적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교육적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결론

본 연구는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을 살펴보았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이 간호사-간호사협력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전문직 자아개념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 임상사례를 바탕으로 한 전문직 간 협력이 가능한 시뮬레이션 교육의 개발 및 적용을 통한 전문직 간 교육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직 간 협력에서 중요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방안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과 간호사-간호사협력 및 간호사-의사협력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이 간호사-간호사협력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일부 지역 및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추후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여 반복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으며, 전문직 자아개념 영향요인인 전문직 간의 의사소통 향상 및 협력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1] L. S. Lee & C. H. Kim. (2017). Conflict Management Style,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Collaboration among Hospital Nurses and Physicians.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20(1), 69-78. DOI : 10.7587/kjrehn.2017.69
- [2] S. H. Jeong., S. H. Jeong., M. H. Lee & H. K. Kim. (2018). Effects of Perceived Collaboration with Nurses and Physicians on Nursing Performance in Perioperative Nurses.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4(3), 253-264.  
DOI : 10.11111/jkana.2018.24.3.253
- [3] Ma, C. & Stimpfel, A. W. (2018). The association between nurse shift patterns and nurse-nurse an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in acute care hospital units. *JONA: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48(6), 335-341.  
DOI : 10.1097/NNA.0000000000000624
- [4] Ali, M. K., Chwastiak, L., Poongothai, S., Emmert-Fees, K. M., Patel, S. A., Anjana, R. M., Sagar, R., Shankar, R., Sridhar, G. R., & Kosuri, M. (2020). Effect of a collaborative care model on depressive symptoms and glycosylated hemoglobin, blood pressure, and serum cholesterol among patients with depression and diabetes in India: the INDEPENDENT randomized clinical trial. *Jama*, 324(7), 651-662.  
DOI : 10.1001/jama.2020.11747
- [5] Feldman, L. S., Costa, L. L., Feroli Jr, E. R., Nelson, T., Poe, S. S., Frick, K. D., Efird, L. E., & Miller, R. G. (2012). Nurse-pharmacist collaboration on medication reconciliation prevents potential harm. *Journal of Hospital Medicine*, 7(5), 396-401. DOI : 10.1002/jhm.1921
- [6] Welch, C. D., Check, J., & O' Shea, T. M. (2017). Improving care collaboration for NICU patients to decrease length of stay and readmission rate. *BMJ open quality*, 6(2), e000130.  
DOI : 10.1136/bmjopen-2017-000130
- [7] Y. J. Lee & J. I. Hwang. (2019). Relationships of Nurse-Nurse Collaboration and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with the Occurrence of Medical Error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25(2), 73-82.  
DOI : 10.11111/jkana.2019.25.2.73
- [8] Emich, C. (2018). Conceptualizing collaboration in nursing. *Nursing Forum*, 53(4), 567-573.  
DOI : 10.1111/nuf.12287
- [9] Schuler, M. S. (2016). Shadowing in early baccalaureate nursing education and its influence on professional role perspectives. *Nurse Educator*, 41(6), 304-308.  
DOI : 10.1097/NNE.0000000000000276
- [10] Arthur, D. (1995). Measurement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s: developing a measurement instrument. *Nurse Education Today*, 15(5), 328-335.  
DOI : 10.1016/s0260-6917(95)80004-2
- [11] S. J. Kim., H. J. Lee & Y. M. Lee. (2019). Professional self-concept,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school health nurse.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1(1), 531-542.  
DOI : 10.37727/jkdas.2019.21.1.531
- [12] M. R.. Jung. (2016). Effects of clinical nurses' self-leadership,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performance ability and burnout on vital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16(12), 559-573.  
DOI : 10.22251/jlcci.2016.16.12.559
- [13] J. H. Lee & H. J. Jeong. (2022). The Influence of Professional Self-Concept, Nursing Work Environment, and Teamwork on Job Satisfaction of Nurses in Comprehensive Nursing Care Ward.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8(2), 149-155.  
DOI : 10.17703/JCCT.2022.8.2.149
- [14] K. M. Lee & S. H. Kwon. (2021). Factors affecting burnout in nurses working in oncology unit. *Journal of Wholistic Nursing Science*, 14, 1-8.
- [15] M. K. Jeon. (2013). Factors Influenc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mong nursing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7(4), 119-129.  
DOI : 10.12811/kshsm.2013.7.4.119
- [16] H. R. Song. (2010). *Comparative study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ing perception in nurses and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 [17] J. L. Lee. (2019). The Influence of Nursing Organizational Culture,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on Career Preparation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3(3), 61-73.  
DOI : 10.34089/jknr.2019.3.3.61
- [18] Dougherty M. B, Larson E. L. (2010). The nurse-nurse collaboration scal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40(1), 17-25.  
DOI : 10.1097/NNA.0b013e3181c47cd6

- [19] Ushiro R. (2009). Nurse-Physician Collaboration Scale: Development and psychometric testing. *Journal of Advanced Nursing*, 65(7), 1497-1508. DOI : 10.1111/j.1365-2648.2009.05011.x
- [20] B. K. Seo. (2021). *Impacts of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ommunication style on collaboration of nurse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 [21] Ma, C., Shang, J., & Bott, M. J. (2015). Linking unit collaboration and nursing leadership to nurse outcomes and quality of care. *JONA: The Journal of Nursing Administration*, 45(9), 435-442. DOI : 10.1097/NNA.0000000000000229.
- [22] E. J. Kim. (2020). *The Effects of Nursing Students Perception of Taeoom and the Self-Concepts of Nursing Professionals on Career Identity*.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 [23] B. M. Seo & H. J. Park. (2014).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8(4), 149-161. DOI : 10.12811/kshsm.2014.8.4.149
- [24] College of Nurses of Ontario. (2014). RN and RPN practice: The client, the nurse and the environment.
- [25] John H V Gilbert, Jean Yan, Steven J Hoffman. (2010). Framework for action on interprofessional education and collaborative practice (No. WHO/HRH/HPN/10.3). *World Health Organization*, 196-197.
- [26] S. Y. Park. (2004). The Effect of Value Clarification Training(VCT) on Nurses' Professional Self-concept, Job motivation and Job satisfaction. *Journal of Kyungpook Nursing Science*, 8(1), 31-42.
- [27] M. J. Je., H. M. Son. & D. H. Kim. (2017). The Impact of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Nurse Practice Environment on the Retention Inten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9(1), 527-541. DOI : 10.37727/jkdas.2017.19.1.527
- [28] Jahromi, Z. B., Kargar, M., & Ramezanli, S. (2016).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clinical performance. *Bangladesh Journal of Medical Science*, 15(1), 57-61.
- [29] Stutsky, B. J., Laschinger, H. K. S., & Heather, K. (2014). Development and testing of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ve practice. *Health and Interprofessional Practice*, 2(2), 2159-1253.1066.
- [30] Souza, G. C. d., Peduzzi, M., Silva, J. A. M. d., & Carvalho, B. G. (2016). Teamwork in nursing: restricted to nursing professionals or an interprofessional collaboration *Revista da Escola de Enfermagem da USP*, 50, 0642-0649. DOI : 10.1590/S0080-623420160000500015.

## 전 소 자(So-Ja Jeon)

[정회원]



- 2006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14년 2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간호박사)
- 2015년 9월~현재 :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청소년건강, 여성건강, 가족간호
- E-Mail : junsoja@chsu.ac.kr

## 전 미 경(Mi-Kyung Jeon)

[정회원]



- 2005년 2월 :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석사)
- 2016년 2월 : 충남대학교 간호학과 (간호박사)
- 2023년 3월~현재 : 충청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간호, 간호교육
- E-Mail : jeonmk4311@nate.com